

조선대 新·舊 이사진 정이사 출범 놓고 사학분쟁위서 격론

“옛 재단측 배제” vs “참여 권리 있다”

박철웅 전 조선대 총장 일가의 완전 배제나, 아니면 복귀나를 놓고 초미의 관심을 끈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17일 열렸다. 조선대 신·구 경영진의 대회는 1988년 조선대 학내민주화사건 이후 20년만에 처음이다.

전호중 조선대총장 등 현 학교 운영진 8명과 박철웅 전 총장측 구 재단 이사 3명의 대리인들은 17일 오후 6시 서울시 종로구 사학분쟁조정위에 출석, 각자의 주장을 위원들에게 피력했다.

구 경영진 측인 정애리(박 전 총장의 부인) 씨 등 3명의 전 이사들은 건강 또는 개인 신상의 이유로 대리

인들을 참석시켰다. 전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조선대 구성원들이 정이사 체제 전환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고 전제한 뒤 ▲구 경영진 철저 배제 ▲설립정신 구현 ▲1·8 민주화쟁(1988년 조선대 학내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미래가치 구현 등 4가지 원칙을 천명했다.

회의를 마친 이철갑 조선대 기획조정부실장은 “생각보다 심겁게 끝난 면이 없지 않지만 위원들이 양측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만큼 다음달을 넘기지 않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대 측은 이날 사학분쟁조정위

출석에 앞서 조선대 산하 14개 기관 및 단체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상화 청원서’를 발표하고 정이사 체제의 당위성과 구 경영진이 배제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박 전 총장 일가가 학교법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운영했던 덕산그룹, 고려시멘트, 한국시멘트 등이 부도났으며, 덕산그룹의 경우 파행적 운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정애리씨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김병현(64·전 조선대 직원) 씨는 이날 회의에서 “정씨는 지금까지 20년동안 학교를 지켜준 분들에게

고맙다는 의견을 전해달라고 했다”며 “직전이사들의 완전 배제는 부당한 처사이고 우리가 돌아간다고 해도 보복이나 불이익이 없었으니 화합하는 차원에서 함께 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금 경영진 측에서는 자꾸 박철웅 전 총장이 설립자라는 것을 부정하는데 오히려 설립동지회가 설립했다는 것이 왜곡된 사실”이라며 “직전 이사들의 이사로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학분쟁조정위의 차기 정기회의는 다음달 14일 열린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너릿재 터널 밝아졌다

광주~화순을 연결하는 너릿재 터널이 환하게 밝아졌다.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너릿재 터널의 조명을 자연광에 가까운 주광색 고압나트륨등으로 교체하고, 벽면 대청소를 실시했다. 사진 위는 공사 전 어두웠던 너릿재 터널. 아래는 밝아진 현재 모습.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원침 (7412) 김장두



‘국유지 사기’ 이석호씨 살인 청부도

“5억 줄게 없애달라”... 해결사들, 범행 제보 70대 차로 치어 중상

건국 이래 최대 국유지 환수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전직 세무공무원 이석호(77·구속중)씨가 자신의 범행을 제보한 지체장애인을 청부 살해하려 한 사실이 4년 만에 드러났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류형상)는 17일 자신의 범죄사실을 검찰과 감사원 등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70대 장애인을 청부살해하려 한 이석호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로부터 살인 청부료를 받고 이를 실행한 윤모(54·유형주점

업), 정모(34·무직)씨를 구속 기소하고, 해외에 체류중인 황모(40)씨를 기소중지했다. 또 정씨가 범행 대가를 받도록 도운 노모(33)씨와 강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석호씨는 지난 1980년대 토지거래 중개를 하면서 마찰을 빚던 김모(81)씨가 검찰과 감사원 등에 자신의 사기행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자 지난 2004년 3월엔 윤씨에게 김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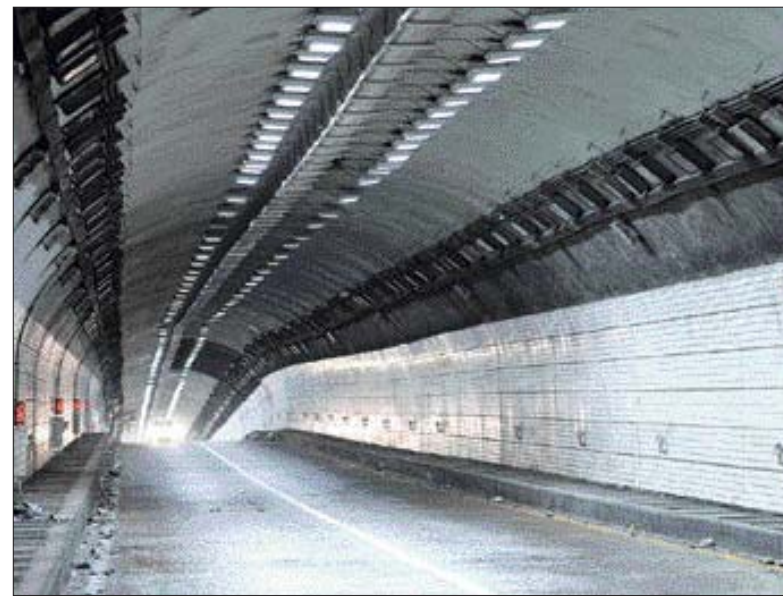
청부살인을 의뢰받은 윤씨는 후배인 정씨와 황씨를 끌어들여 합숙까지 하며 범행을 모의한 끝에 지난 2004년 5월 목포시 용해동의 한 도로에서 렌터카로 김씨를 들이받아 전치 9주의 중상을 입혔다.

윤씨는 범행 대가로 이석호씨에게 5억원을 받기로 했으나 김씨가 죽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을 주지 않자 이씨에게 협박편지를 보냈고, 결국 해남군 일대 토지 48필지(시가 3억원 상당)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윤씨의 공범 정씨는 범행 대가 1억원을 받지 못하자 고향 후배들이 노씨와 강씨를 동원, 윤씨에게서 현금 3천만원과 해남군 일대 토지 3필지를 이전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석호씨는 공무원과 친인척 등 27명과 짜고 부동산 매도 증서 등을 위조한 뒤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국유지(605필지·214만여㎡)를 환수받아 특례매각 이익금과 환수보상금 190억원을 챙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25일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권일·안현주기자 ck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CC construction services, including DS Construction and JBN Construction.

술값 내기 팔씨름하다 주먹질

상나팔

○광주북부경찰은 17일 술값 내기 팔씨름을 하던 도중 선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홍모(36·북구 두암동)씨를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이날 새벽 1시에 광주시 북구 두암동 B호프 집에서 이모(49·북구 오치동)씨와 술값 내기 팔씨름을 하던 중 경기방식 문제를 놓고 말다툼 끝에 이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홍씨는 재미 삼아 팔씨름을 하던 중 ‘지는 사람이 술값을 내기로 하자’는 이씨의 제안을 받고 시험에 이겼는데, 탄소리(?)를 하자 화가나 주먹을 휘둘렀다고.

○홍씨는 경찰에서 “이씨가 제안한 경기 방식이 처음부터 공정하지 못하다 계속해서 트집을 잡자 화가 났었다”고 진술.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협박 편지 발견...담당 검사 끈질긴 수사

어떻게 밝혀졌나

한 통의 협박 편지와 검사의 끈질긴 수사가 땅에 묻힌 뺨한 사건을 들춰냈다.

지난해 이석호씨의 국유지 환수 보상 사기사건을 수사했던 광주지검 특수부는 압수품 속에서 이상한 편지 한통을 발견했다.

편지에는 ‘당신이 죽이라고 해서 실행에 옮겼다. 왜 돈을 주지 않느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발신인은 청부살인의 실행자인 윤모씨.

수사 담당인 신자용 검사는 구속된 이석호씨에게 “세상에서 죽일 만큼 미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편지 입수사실을 물었던 이씨는 “국유지 문제를 감사원에 고발한 김모씨다”고 고백했다.

신 검사는 협박편지에서 언급된 청부 살인의 대상이 김씨일 것으로 직감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의 연고지인 목포 일대의 교통사고와 건보공단 서류 등을 일일이 조사한 끝에 피해자 김씨의 이름이 쓰인 교통사고를 찾아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7천억대 국유지 골격 ‘현대판 봉이 김선달’

이석호씨 누구



7년형을 선고받았다. 1999년 말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씨는 지난해 국유지 환수보상금 190억원을 불법으로 챙겼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불리는 이석호씨는 1970년대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7천억원 상당의 광주·전남 일대 국유지(4만1509필지·1억7318만㎡)를 친인척들의 이름으로 헐값에 취득했다.

이씨는 지난 1985년 국유지 취득과정의 불법을 이유로 구속됐으나 사문서위조 외에는 공소시효가 지나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씨는 1993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7년형을 선고받았다. 1999년 말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씨는 지난해 국유지 환수보상금 190억원을 불법으로 챙겼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혼자 살던 60대 노인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6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오후 1시에 광주시 북구 문흥동 M아파트에 사는 최모(68)씨가 거실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사회복지도우미 김모(여·57)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 번 최씨 집을 방문하는데, 이날은 이상하게도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의 머리 등에 상처가

있고 집기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점으로 미뤄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직 교사인 최씨는 지난 2000년 부인과 사별한 뒤 이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 medical clinic offering laser treatment for hemorrhoids and other conditions.

Large advertisement for 'GRAND OPEN' featuring a scenic view of a building and promotional text in Korean.